



# 光州日報



## 광주·전남 대체에너지 최적지 불구 법규·민원 탓 고유가 대응 못해

### 각종 규제 묶여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미미' 대체에너지 사용 광주 2.2% 전남 3.3% 불과

광주·전남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의 최적지로 꼽히지만 불합리한 법규와 부족한 자금 지원, 집단 민원때문에 성과가 부진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 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올초 53달러에서 지난 23일(현지시간) 64달러 30센트까지 올라 심각한 에너지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서 광주·전남은 전국 최대 일사량(전국평균 3천92kcal/m<sup>2</sup>, 목포 3천331kcal/m<sup>2</sup>)과 강한 바람, 잘 발달된 리아스식 해안으로 태양광·풍력·조류발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불합리한 관련 법규와 자금지원 부족, 집단 민원까지 겹쳐 에너지위기 해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제34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34조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소수력(小水力)발전과 풍력발전설비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남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체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 설비는 불가능하다. 특히 태양광설비는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같은 규정때문에 가장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전남의 잠재성이 사장되고 있다.

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산자원보호구역에도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 최근 (주)한백솔라는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산 6번지에 1천50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려 했으나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반려됐다. 더욱이 산업자원부가 최근 70세대

■사·도 에너지소비량 및 대체에너지 사용량 (2004년 기준)

구분	에너지 소비량 (천toe)	대체 에너지 소비량(천toe)	대체 에너지 사용비율(%)
서울	14,777	78,261	0.5
부산	6,974	73,338	1.1
대구	4,596	54,857	1.2
인천	9,320	185,806	2.0
광주	2,021	43,752	2.2
대전	2,352	21,768	0.9
울산	20,094	464,790	2.3
경기	20,671	396,737	1.9
강원	6,341	184,697	2.9
충북	5,696	156,197	2.7
충남	14,129	125,818	0.9
전북	4,599	90,173	2.0
전남	29,290	982,102	3.3
경북	15,351	271,745	1.8
경남	6,729	109,646	1.6
제주	1,056	18,059	1.7

의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태양광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으나 소규모 발전설비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4일 현재 전남도 내에는 모두 77개의 태양광발전 허가업체가 있으나 이중 200KW이하가 4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마

저도 자금난 등으로 6곳만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광주는 지난 2004년말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 202만 1천toe(1toe는 원유 1t의 발열량을 칼로리 기준으로 표준화한 에너지량 단위) 가운데 2.2%에 불과한 4만 3천752toe만 태양광 발전 등으로 대체됐다. 전남도 내 대체에너지 총량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3.3%였다.

여기다 산자부는 현행 KW당 716원에 구매하는 태양광발전업체 생산 전력 단가를 오는 10월부터 소규모 업체는 인상하는 반면, 경제성이 높은 대용량업체는 낮출 방침이어서 대체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지난 17일에는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에서 1단계 3MW급 풍력발전소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소음공해가 심해지고 군 당국이 사전협의 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집단 반발해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본사·대주건설 주최 교사 '규슈 역사문화 탐방' 광주일보사와 대주건설이 광주·전남지역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일본 규슈 지방 역사문화탐방단'에 선발된 교사 45명이 24일 2박 3일의 일정으로 탐방길에 나섰다. 탐방 참가 교사들이 출발에 앞서 광주역 앞에서 '탐방 성공'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 공무원 선거개입 위험수위

### 장밋빛 개발계획 남발...단체장에 줄서기·가족들 정당 가입도



5·31 지방선거가 임박하면서 현직 공무원들이 당선 유력한 단체장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불법적으로 선거 운동에 개입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선거 후'를 의식한 눈도장 찍기나 눈치보기, 편가르기도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경우 특별한 처벌 조항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광주 A구청에서는 주요 부서 과장과 계장 등의 아내와 자녀, 어머니 등 20여명이 현 구청장이 소속된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구청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은 모두 경선이 시작되기 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정당에 가입했고 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전남 B시에서는 공무원들 사이에 '모 후보가 당선되면 수백명이 인사조치될 것' 누구는 인사계장에 내정됐

다는 등 선거 후 인사에 대한 허마평이 무성하다. 공무원 A씨는 "경합하는 두 후보를 모두 무시할 수 없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직 단체장이 출마한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이 설익은 장밋빛 개발계획을 남발해 주민들을 현혹시키거나, 혈연·지연·학연을 중심으로 사적결속을 강화해 은밀한 지원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전남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특정 정당에 가입했다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발된 공무원은 순천 22명, 화순 9명, 여수 8명, 보성 4명 등 13개 시·군에 57명에 달했다. C시청 공무원 28명은 특정 정당에 입당시켜

를 제출한 뒤 담비까지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돼 검찰에 수사되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 3명은 현직 시장의 지지층 확보를 위해 선심성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 후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이나 이권을 노린 경우가 적지 않아 지자체의 부조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과 기타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벌칙 조항이 없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중립의무만 위반했을 경우는 법 적용이 사실상 힘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제 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오늘 접수 마감  
▶http://www.kwangju.co.kr ▶문의: (062)220-0541, 222-8111

## 北, 경의·동해선 시험운행 돌연 취소

### '군사보장 조치' 문제 삼아...남북관계 급속 냉각 우려

북측은 24일 '군사보장 조치'와 '남측의 정세'를 거론하면서 25일로 예정된 경의선, 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격 통보했다. 남북 당국이 합의한 열차시험운행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북측은 이날 오전 남북 철도·도로 연결 실무접촉 북측 단장인 박정성 철도성 국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과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유로' 열차 시험운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밝혔다.

북측의 통지문은 "북남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쌍방 군사 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조건에서, 그리고 남측에서 친미·극우보수 세력들이 공화국기를 약질적으로 불태우고 6·15 세력들에게 매일같이 무모한 반격을 가하며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열차 시험운행과 같은 민족의 대사에 극히 불안정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험운행은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연남스

## 韓·日 배타적경제수역 협상 내달 12~13일 도쿄서 재개

한일 양국이 동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협정 협상을 다음달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재개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EEZ 경계 문제는 한일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한 지난 4월 일본측의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무단 측량 계획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 점에서 특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계속 고집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협상에 진전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일본측의 무단 측량계획으로 갈등이 빚어진 후 정부는 '독도-오끼섬'으로 기점을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최진만기자 man21@

후원학원 창립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입학처  
http://www.nsbu.ac.kr  
새로운 담시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우리의 서범석, 도민에게 한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남도지사 후보 기호 1번 서범석